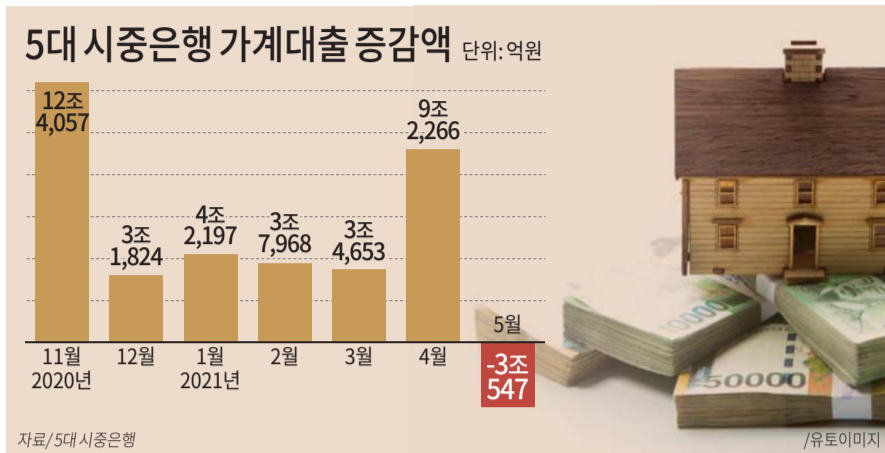


사라진 빚투 열풍...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3兆 547억 ↓

가상화폐·IPO 약세... 신용대출 ↓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영향
주택담보대출은 1.2조 이상 증가



5월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잔액이 지난달 말과 비교해 3조 547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기업공개(IPO) 공모주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 열기가 사그라 들었다는 분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687조 807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4월 말(690조8622억원)보다 약 3조547

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실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5조1082억원으로 지난달(483조

8738억원)대비 약 1조2344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대출받는 사람의(차주)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금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대출(DSR) 4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마차를 타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용대출잔액은 5월 기준 138조 4911억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3조 7367억원 감소했다. 가상화폐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공모주들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 열기도 사그라 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전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대출의 실제 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용

대출의 만기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는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1년만기의 상품이어도 매년 갹신되는 관행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10년만기를 적용해 왔다. 만기기준이 내년 7월까지 반으로 줄어든 경우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대출수요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용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대출문의도 있어 정책시행전까진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또 떨어질라”... 공포로 얼룩진 코인시장

5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35% 하락
디지털자산 투자지수 공포~매우공포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해 4300만원대에서 움직인 1일 서울 빙빗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5% 가량 하락한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공포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1일 오후 2시 현재 30.71이다.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내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지표들을 수집해 지수로 산정한 변동성 지수다. 지수는 매우 공포(0~20)·탐욕(21~40)·중립(40~60)·탐욕(61~80)·매우탐욕(81~100)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지난달 19일 이후 매우 공포 단계로 하락한 이후 공포·매우 공포 단계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두 달 전인 4월 초만 하더라도 지수가 70대를 유지하면서 탐욕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마저 동시에 악화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지난달에만

35% 가깝게 하락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6000만원대 후반에서 4000만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글로벌 거래 가격도 같은 기간 37% 가량 내렸다. 이 같은 낙폭은 지난 2011년 9월 중 40% 폭락한 이후 월 기준 최대 하락폭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달 23일에는 공포-탐욕 지수가 4.92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10월 1일 이래 지난해 3월 12일(0.20), 2018년 1월 16일(3.3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3일 저점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별 자산별로도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비트 원화시장 중 지수가 공개된 110개 가상화폐 중 101개(91.81%)가 현재 지수 40을 밑돌면서 공포 단계에 해당했다. 특히 웨이브(지수 18.33)는 매우 공포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투자심리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의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를 인용해 이번 가격 폭락은 신규 투자자들의 패닉셀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량 보유자와 기관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보다 높다"며 "국내에서도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으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도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석 기자 ysl@

“투자상품 비과세 통해 국민 재산형성 도와야”

금융투자협회 ISA 도입 정책토론회



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볼스홀에서 열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성 강조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형 ISA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통해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볼스홀에서 이광재·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ISA는 2016년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그동안 미비한 세제 유입 및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로 가입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금소법, 고난도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과도하고, 주식 비중이 적은 편"이라며 "확실한 주식 장기보유 혜택을 부여해 단타 위주의 주식거래를 장기보유로 만드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제도 도입 초기 각 금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6년 말 239만개좌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정체되면서 지난해 말 194만개좌로 축소됐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무인화 의견 분분... 인력감소 목적 vs 대체효과 미미

>> 1면 '직원이 사라진다...'서 계속

아워홈 관계자는 "헬로잇박스는 기존 구내식당이 가지고 있던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근 스타트업들 비롯해 식사 및 근무 시간이 자율적인 곳에서 수요가 크다"면서 "코로나19에 비대면 소비가 대세로 떠오른 만큼 올해까지 대상 점포의 10%까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풀무원도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엔택트 무인 매점'을 선보였 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시간 발생하는

서울시의 사건 및 사고를 접수하는 상황실과 당직 근무 등으로 항상 근무 인력이 상주하는 곳이다.

엔택트 무인 매점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상주 관리 인력 없이도 유통기한 짧은 신선식품과 냉장·냉동 간편식(HMR) 등을 공간 수요에 따라 구성하여 폭넓게 운영할 수 있다.

무인 식당의 등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었지만, 실업 이슈를 피하기는 어렵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및 소비 패턴의 변화도 크지만, 무인 식당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결

국 인건비 절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 견해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개최한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서울시 357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무인주문기 도입이 매출을 6% 증가시켰지만, 종업원 대체 효과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주문기 도입업체에서 0.23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한국조선해양, 이틀간 1.3조 규모 선박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이틀동안 총 1조 3600억원 규모의 선박 12척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과 31일 오세아니아와 유럽, 아프리카 5개 선사와의 이틀간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8만6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 4만 입방미터급 중형 LPG운반선 1척,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PC선) 4척, 3만 입방미터급 소형 LNG운

반선 1척 등 12척이다.

이중 대형 LNG선 4척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된다. 또 초대형 LPG선 2척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는데 2024년 상반기까지 인도되는 선박에는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된다.

이외에도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적용되는 소형 LNG선 1척과 PC선 4척, 중형 LPG선 1척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